

西歐科學과 韓國의 近代化

朴 星 來

外國語大

西欧科学と韓国の近代化

要 約

伝統社会が近代への転換をなしとげるにはいろいろの政治的・経済的、あるいは社会的変革を必要とする。とはいえ、民意の収斂を特徴とする近代的な政治構造、資本主義的な近代的経済構造、また都市の成長と人口の移動及び中産階層の発生を特徴とする社会構造——これらの近代社会構造の下層には近代の科学と技術が確かにあることを認めなければならない。

結局、東洋諸国における近代化とはまさに西洋で発達した近代科学と技術をどのように受容して自分のものに消化したかによったともいえる。

このような視点から見れば、東洋三国の中で日本はこの努力に成功したが、中国と韓国は失敗したといえる。ところが、この成功と失敗の歴史は今まであまり注目されず、韓国の失敗した近代化と日本の植民地に転落したことだけがとりあげられていた。

主として、韓国の近代化の失敗は王室の無能、指導層の領導力不足およびかれらどうしの葛藤、とくに開化派と守旧派、あるいは親日派と親露派らの派閥などに原因すると説明されてきた。

1876年の開国とそれ以後だけを見るとそのような印象は当然だと思われる。

しかし、もう少し視野を広げて見ればこの説明は適切だとはいえない。17世紀以来、日本と中国には西洋の近代科学と技術が順調に流れこんで来たが、韓国はそのような機会に恵まれなかった。マテオ・リッチ以来、中国には西洋科学がイエズス会士たちによって翻訳紹介された。また、1543年の鉄砲伝来以来、日本にもほぼ同じ西洋科学が伝えられた。

外来文化に対して極めて対照的な歴史的経験をしてきた中国と日本は、西洋科学に対しても互いに違う反応を示した。鎖国のなかにながらも日本人は長崎商館を中心に蘭学者を養成し、西洋文化を習い、オランダ語を勉強した。

ところが、中国人は西洋人との翻訳には協力しながらも、みずから西学者になることも西洋語を勉強することもしなかった。両国がこのように対照的ながらも共通した経験をへている間に韓国人は西洋と直接に接触する機会さえ持たないままだった。

地理的に航路から遠くはなれている韓国に対して西洋宣教師はあまり関心をよせることもなく、商船も寄着港を必ずしも必要としなかった。

17～18世紀の韓国人は中国から輸入された漢訳書を通じて近代科学にやっと接触しただけであった。

中国と日本が開国した1850年代までに、韓国の近代化はすでに日本・中国とは比較にならないほどに遅れていた。そのように落後したもっとも大きな原因は、西洋科学との間接的な接触にあることはいうまでもない。例えば1830年代の韓国にはたしかに静電気発生装置が存在していた。この装置は半世紀も前にすでに日本の平賀源内が製作したものが渡って来たのである。平賀のエレキテルがどのように韓国に伝来したのかは知られていない。しかし、このエピソードは極めて例外的なものであって、それ以外に、日本に伝えられた西洋科学に関して韓国人はなにも知らなかつ

た。

2世紀以上も続いた韓國の西洋科學受容においての間接的性格は1945年まで持続する韓國近代史の特徴である。そして、この特徴は、韓國の近代化に絶對的な障礙要素であったと思われる。

このような要素を考慮せずに韓國の近代史を叙述することは不可能であろう。

“近代化”라는 표현 속에는 분명히 18세기 계몽사상가(philosophes)의 發展史觀 내지는 進歩에 대한 믿음이 깊이 도사리고 있다. 그것은 이미 中立的 表現이기보다는 價値包含的인 의미를 갖고 있다. 政治・經濟・社會的 측면의 여러가지 客觀的 특성을 들어 近代化를 客觀的 社會變動 현상으로 설명하려는 社會科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표현 속에 흐르고 있는 “좋은 社會에로의 變化”라는 의미를 무시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近代化”란 표현은 원래 그 모델이 西洋의 近代社會에 있다. 따라서 “韓國의 近代化”란 표현에는 이런 가치판단적인 暗示가 깔려져 있을 수 없다.

우선 이와같은 가치판단적인 평가를 留保한 채 지난 1세기 전후부터 지금까지 韓國의 사회적 변화를 살펴 보자. 100년 전에 시작된 變化가 오늘의 韓國社會를 크게 다른 사회로 만든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급격한 變化는 종전 싫건 不可避한 것이었고, 또 그 變化는 韓國人들이 바란 것이었다고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 變化의 길은 결코 순조롭지 못했고 특히 植民地 경험이라는不幸은 韓國人들이 스스로의 近代化과정을 歷史的으로 평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쳐 왔다.

韓國近代史는 한국인의 근대화 노력을 失敗로 규정하고 그 失敗의 원인을 여러가지로 분석한다. 그 대표적인 것은 우선 日本帝國主義의 침략이다. 한 말 앞서서 近代化에 성공한 日本은 처음에는 韓國의 經濟的 침략에 西歐列強과 더불어 참여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침략의 폭을 外交・政治로 확대하며 獨占해 갔고 드디어 1910년의 合併으로 이끌어 갔다. 이런 外部的 原因 못지 않게 史家들은 內部的인 원인도 들고 있다. 高宗과 閔妃 그리고 大院君으로 대표되는 王室은 無能했고, 부패했고, 無知했다. 게다가 그들을 돕고 있던 양반支配層은 派爭에 바쁜 채 外勢의존에 급급했다.

이런 評價는 모두 그런대로 妥當性을 가진다. 그러나 먼훗날 긴 歷史의 극히 짧은 한 시기로 19세기 말의 韓國을 되돌아 보게 될 때, 과연 이런 정도의 평가가 타당하게 여겨지고 중요시될지는 의문이다. 19세기의 韓國人이 近代化에 실패한 원인은 보다 더 根源的인 곳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 근원적 원인이 西歐 科學技術의 受容에 실패한 데 있음을 우리는看過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西歐 科學技術 受容이야말로 非西歐의 近代史 이해에 가장 중시되어야 할 近代史의 보다 근본적 構造라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西歐의 近代史 역시 17세기의 科學革命(Scientific Revolution)을 起點으로 보고 그것을 보다 근본적인 構造의 變化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東아시아의 近代史는 西歐科學의 受容이라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科學革命〉을 轉機로 하여 시작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東아시아의 近代史 서술에 있어서 西歐科學의 受容문제는 지금보다 훨씬 큰 무게를 가지고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韓國의 近代史가 좌절과 정체로 특징지어진다면, 그 원인은 다른 곳에서보다는 科學史에서 찾아져야 한다. 韓國의 近代化가 뒤늦어진 이유는 어느 다른 이유보다 한국이 西歐科學의 受容에 不便한 위치에 있었던 때문이다. 歷史的으로나 地理的으로나 이웃 日本이나 中國보다 불리한 조건 속에서 西洋과 만난 朝鮮王朝시대의 한국인들은 나름대로는 새로운 西洋科學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 결과는 별로 뚜렷한 것이 아니었고, 결국 1876년의 開國 이전에 이미 이웃 日本이나 中國에 비해 훨씬 뒤진 수준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韓國의 近代化를 科學史的인 視角에서 정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點이 韓國近代史 서술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인들이 西洋과 만나게 된 時期는 日本이나 中國에 비해 훨씬 늦다. 日本에서는 1543년

포르투갈船이 九州 남쪽에 표착하여 鐵砲 등의 서양문물을 전해 준 것을 西洋과의 접촉 시작으로 꼽는다. 비슷한 때에 中國에도 西洋 近代文物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물론 보다 본격적인 西洋과의接觸은 1601年 Matteo Ricci가 北京에서 활동을 시작한 뒤부터였다. 1543년 日本에 전파된 鐵砲는 즉시 種子島의 領主를 비롯한 각 지방에서 모작되어 鳥銃의 발달을 가져왔고, 1549년에 도착한 Xavier의 활동등으로 한 때 日本에서는 基督教의 布教까지 공인되었었다. 德川幕府가 기독교를 탄압하고 鎖國令을 내린 것은 사실이지만 鎖國시대에도 長岐商館을 통해 西歐科學은 지속적으로 흘러들어왔다. 똑같은 1543년 韓國에서는 豐基郡守 周世鵬이 白雲洞書院을 세우고 있었다. 朱子의 白鹿洞書院을 본떠 韓國歷史上 첫 書院이 세워졌다는 사실은 朱子學의 理念體系가 朝鮮時代에 완전히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1543년은 西洋史에서는 코페르니쿠스의 地動說이 출판된 해로서 科學革命의 元年으로 꼽힌다. 같은 해에 日本은 西洋技術과의 접촉을 시작함으로서 西洋科學 受容을 主題로하는 東아시아의 科學革命의 첫발을 내딛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해에 朝鮮朝는 안정된 朱子學의 세계로 安住해 가고 있었던 셈이다. 韓國人이 처음 西洋의 科學技術과 접촉한 것은 1631년 明에서 돌아온 鄭斗源이 千里鏡·西砲·自鳴鍾 등을 가져온 사건으로 시작된다고 보통 記述되고 있다. 種子島의 鐵砲(1543)와 鄭斗源의 自鳴鍾(1631) 사이에는 여러가지 다른 점이 많지만 우선 우리는 그 時差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韓國은 이미 西洋과의 접촉 시작에 있어 日本이나 中國보다 거의 1세기 뒤지고 있었던 것이다.

둘째, 韓國의 西洋科學 受容은 이웃 日本·中國과는 크게 다르게 一貫된 間接性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種子島의 鐵砲 이래 日本에는 계속 西洋人이 찾아와 머물면서 日本人에게 西洋의 科學技術을 가르쳐 준 셈이고, 마테오 리치以後 中國에서는 아예 欽天監이 西洋宣教師들에 의해 통괄되고 있었다. 그러나 鄭斗源은 中國에 가서 그곳에 와 있는 西洋宣教師에게서 西洋文物을 얻어왔을 뿐 西洋人이 직접 韓國에 渡來하여 科學技術을 소개한 일은 없다. 1653年 漂流해 온 Hamel이 있었고 그에 앞서서도 Weltevre(1627)가 표류해 왔으나, 이들은 宣教師 같은 지식의 傳達役을 수행할 수 없는 船員이었고, 또 그런 일은 지속적인 接觸窓口가 될 수도 없었다. 이들 두 和蘭船員은 모두 日本의 長岐에 가던 길에 風浪으로 韓國에 표류해 왔다. 이들의 에피소드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日本에서 발전하고 있던 蘭學은 韓國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그대신 韓國人이 間接的 西洋科學 受容은 주로 淸에 다녀오는 燕行使를 통해 이뤄지고 있었다. 새 것을 원하는 많은 學者들은 燕行을 통해 西洋科學의 모습을 익힐 수 있었고 燕行에서 가져온 漢譯書를 통해 西洋科學技術에 눈뜰 수 있었다. 18세기 전후 朝鮮社會의 새로운 知的 傾向으로 강조되고 있는 實學이란 그 상당 부분이 바로 이러한 西洋科學의 영향 속에 성장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그 科學的 內容은 극히 빈약한 것이었다. 實學 속의 西洋科學이 빈곤하다는 것은 韓國科學史가 西洋科學 受容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철저한 間接性에 그 원인이 있다. 開國(1876년)이전의 정세가 이런 間接性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면, 그런 전통이 開國이후까지 줄곧 계속되었음에는 약간 놀라지 않을 수 없을지 모른다. 1881년 朝鮮王朝는 新文明을 시작하기 위해 日本에 소위 紳士遊覽團을 파견했고, 中國 天津에는 과학기술을 습득하게 하려고 최초의 과학기술 留學生을 파견했다. 그 훨씬 전에 日本이나 中國은 이미 상당수의 과학기술 유학생을 西洋에 직접 보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朝鮮王朝는 나라가 망할 때까지 한번도 西洋에 과학기술 유학생을 파견한 일이 없다. 17세기 이후 20세기 초까지 계속된 西洋科學 受容의 間接性은 韓國의 近代化를 가로막은 가장 큰 장애요소였다고 생각한다.

세번째로 우리가 韓國 近代化에서의 西洋科學의 受容문제를 고려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은 韓國社會의 特性이다. 封建的 社會構造를 갖고 있던 日本에서는 種子島의 鐵砲가 즉각 模倣되어 全國에 퍼지게 되었고 그것이 豐臣秀吉의 侵略戰에 유용한 武器로 발달될 수가 있었다. 그러나 中央集權의 정치구조에다가 李氏王朝의 王權이 朱子學의 理念體系로 확고히 安定된 韓國에서는 新武器의

개발은 불필요한 것이었다. 오히려 士大夫들의 天文學의 好奇心을 자극하는 望遠鏡이나 自鳴鍾이 흥미를 끌고 있을 뿐이었다. 封建的 社會였던 日本은 당장의 軍事的 必要性 때문에 鐵砲가 퍼져갔고, 이로써 달라진 전투양식 때문에 銃傷者가 많아지자 西洋醫學이 발달하여 「解體新書」를 남게 되었다. 또 전통적으로 天文曆學에 대한 東아시아人들의 높은 관심도 마찬가지로 天文學도 받아들였다. 그러나 韓國에서는 新武器는 발달할 수가 없었고, 마찬가지로 外科手術에 대한 관심도 새삼 높아질 까닭이 없었다. 오직 전통적으로 重視되었던 天文曆算에서만 西洋科學이 쉽게 인정을 받게 되었을 따름이다. 李瀾(1682—1764)은 서양 天文學의 정밀성을 극구 찬양했고, 洪大容(1731—1783)은 地轉을 주장하고 宇宙無限을 말하는 등의 創意性을 보이지만, 그것은 儒家로서의 호기심에서 벗어나지는 못한 것이었을 뿐이다.

이와 관련되는 문제들로는 우선 韓國의 傳統 속에서 科學·技術이란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를 평가 하는 일이 있다. 같은 儒敎文化圈에 속하면서도 德川時代 日本에서의 科學技術觀과 朝鮮時代의 그것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인다. 또 같은 문제는 韓國과 日本만이 아니라 中國을 포함한 세 나라 사이에서도 비교해 볼 중요한 문제이다. 구체적인 例를 들어 언제부터 세 나라에서는 西洋科學技術의 道具的 重要性을 인정하고 있었느냐를 생각해 보자. 韓國人들이 西洋科學技術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배울 필요성을 말한 것은 朴齊家(1750—1805) 이후부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東道西器”라는 구체적 표현으로 나오면서 西器로서의 서양 과학기술이 널리 우수성이 인정되고 그 受容이 필요하다고 공인된 것은 1876년 開國이후의 일이다. 아무리 빨리 잡더라도 “東道西器”의 태도는 崔漢綺(1803—1879) 이전으로는 거슬러 오르기 어렵다. 1837년의 「氣測體義」에서 그는 儒敎의 倫綱仁義, 西法의 曆算과 氣說을 종합하여 거기에 佛敎의 虛를 實로 바꿈으로써 이상적 學問이 이룩될 수 있다고 쓰고 있다. 崔漢綺의 이런 생각은 佐久間象山(1811—1864)의 유명한 표현 “東洋の道德と 西洋の藝術”만큼 분명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시간적으로는 그를 앞서고 있다. 그러나 이를 山片蟠桃(1748—1821)의 비슷한 말에 비교하면 늦은 것일 뿐 아니라, 日本에서의 그런 마음이 짐은 아마 그보다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는 또한 中國의 張之洞(1839—1907)의 표현 “中體西用”(中學爲體 西學爲用)과 비교할 수 있다. 이들 세 나라의 口號는 한결같이 西洋科學技術의 道具性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口號가 나온 이유는 그만큼 그 수단(用 또는 器)이 본체(體 또는 道)를 위협하고 있음을 인식한데서 나온 것이다. 이들 口號는 西洋科學技術의 有用性 인식에서 나왔다고 보다는 오히려 그것의 傳統破壞性 인식에서 나왔다고 하겠다. 이런 口號는 물론 불가능한 理想의 천명에 지나지 않는다. 道와 器란 그렇게 분명히 갈라지는 것도 아니며 西道에서 발달한 西器가 엉뚱하게 東道를 위해 봉사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西洋科學의 受容이라는 歷史的 轉換點에서 필요한 과정이 이런 태도였고, 그 태도가 日本에서 먼저 나온 것은 여러가지 앞에 든 이유만으로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밖에도 韓國의 西洋科學 受容史에서 빼 수 없는 문제는 基督教敎의 관련성이다. 西洋의 科學技術과 마찬가지로 西洋의 기독교는 세 나라 가운데 가장 늦게 그리고 間接性을 특징으로 전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韓國에서의 기독교는 유별난 受難의 歷史와 함께 日本이나 中國보다 훨씬 깊고 널리 퍼져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톨릭 200周年과 프로테스탄트 100周年을 기념하고 있는 韓國의 기독교는 西洋宣敎師는 구경도 하지 못한 가운데 自生的으로 발달하여 급속도로 퍼져갔고 그것이 19세기 전반의 鎖國主義의 직접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이 鎖國主義야말로 韓國의 西洋科學 受容에 가장 큰 장애요소로 작용했음이 분명하다.

韓國의 近代化는 西洋科學의 受容문제에 주목하지 않고서는 깊이 있게 다뤄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韓國의 近代史 만이 아니라 中國과 日本 또는 그밖의 모든 나라의 近代史는 西洋科學의 受容을 重視하지 않고서는 서술이 곤란하다. 東아시아史에 있어서 西洋科學受容의 歷史는 하나의 <科學革命>이라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 <科學革命>과정에서 이웃 나라보다 뒤늦은 韓國의 경우, 近代史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比較史的 接近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韓國・中國 그리고 日本의 近代科學 受容 比較연구는 日本이나 中國의 近代的 이해에도 크게 도움이 되겠지만, 특히 韓國近代史의 科學에 裨助를 수 없는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東아시아 科學史의 연구는 韓國의 近代史 또는 東아시아의 近代史연구를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오히려 우리가 말하고 있는 近代科學이란 17세기 이후 西洋이 낳은 것이며 그것을 受容하고 土着化하는 과정만으로는 우리는 영원히 西洋과 對等한 위치를 차지할 수가 없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여러가지 現代文明의 副作用을 보더라도 西洋의 近代科學은 만드사 人間을 위해서만 봉사하고 있지 않음이 분명하다. 西洋人의 독특한 思考構造와 歷史的 經驗에서 나온 西歐文明의 特產物인 近代科學이 오히려 人間을 支配하려 드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면, 西洋人과는 다른 思想的 배경과 역사 속에서 近代科學을 낳지 못한 東洋人은 혹시 近代科學을 뛰어넘는 새로운 지혜를 낳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近代科學과는 또다른 종류의 科學, 또는 知識體系가 가능한 것이라면 그것은 바로 東아시아에서 시작될 수도 있을 것 같다. 近代科學 또는 그 同質的 發展型으로서의 現代科學이 갖고 있는 딜레마로부터 인류를 구제해 줄 수 있는 길이 역시 東아시아의 科學史의 연구와 有關함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東아시아에서의 西洋科學 受容이 第一次〈科學革命〉이라면 現代科學의 부작용을 극복하는 새로운 科學體系의 등장은 바로 第二次〈科學革命〉일 수도 있을 듯하다.